

인도 : 이영제 목사

목	도	다	같	이
기	원	인	도	자
찬	송 28장	다	같	이
교	독 64번	다	같	이
신	앙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15장	다	같	이
기	도	인	도	자
성	경 요8:31-47	다	같	이
특	송			
설	교 예수님은 누구 신가?	이	영	제
	 (4. 나의 진리이신 예수님)			
찬	송 349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봉	헌 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다	같	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	도	인	도	자



임명 : 집사 이창걸

24시간 릴레이 중보 기도자

매일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호선) 유동(이창걸)



주앙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요교회 24시간 릴레이 기도제목

○ 주양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이창걸집사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피아노 반주자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화목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영국총신(유학목사님들) 특강이 잘 이루어지며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8월 4일-9일)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세계선교정보연구원 13기 훈련이 잘 마치도록
인터넷 선교가 잘 이루어지며, 서버관리도 잘 이루어지도록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파키스탄 단기선교 여행팀이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형제:정신호, 황반석, 자매:이우진, 조현정, 김미나)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 민족을 위한 기도제목

민족 회개와 종교혼합주의, 미신, 무속 타파를 위해서
영적분별 능력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한국경제회복을 위해서와 실업자, 근로자 문제를 위해서
빈부격차 해소와 경제윤리 회복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식량난과 핵포기를 위해서

○ 가정을 위한 기도제목

부부관계가 회복되며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도록
가정폭력이 사라지고 가출과 탈선이 사라지도록
낙태가 사라지고 미혼모가 줄어들도록
음란의 영들이 사라지며, 윤락여성들이 갱생하도록



주일오후 2시 예배 / 히브리서 주석강해 설교

이영제목사가 직접 연구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 1:1-3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 1:4-14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 2:1-4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
- 2:5-18 구원의 창시자
- 2:14-18 고난에도 견디는 아들의 탁월성
- 3:1-6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 3:7-19 강박한 마음에 대한 경고와 순종에 대한 권고
- 4:1-13 믿음으로 얻은 안식

4:14-16 대제사장이신 예수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라고 선언한 것은 어떤 일부 유대인들은 기독교 안에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저자는 그 대제사장이 실제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μέγαν(메간) “큰,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임으로 아론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분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διελθύθота τοὺς οὐρανοὺς(디에르코마이 토후스 우라노스) “ 하늘로 가시다” 이다. διελθύθота(디에르코마이)는 “ 통과하여 가다” 는 완료 능동태 분사로 승천이 완료되었음을 말한다. 이분은 곧 ‘ 하나님의 아들 예수’ 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확실한 소개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이다 “ 믿는 도리” ὁμολογίας(호몰로기아스) “ 인정, 고백, 동의” 로 고백을 통한 믿음을 나타낸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많았으며 기독교에서 ‘ 사도신경’ 도 일종의 고백서를 가져온 것이다. 딤편 6:12에서는 “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로 사용되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ἀσθενείαις(아스데네이아이스) “ 나약함, 질병, 도덕적으로 연약” 함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성에 대한 모든 약함을 말한다. “ 체휼” 로 번역된 이 단어는 συμπαθεῖν(심파데사이) “ 함께 고난 당하다” 의 의미로 συμπαθεῖω(심파데오) “ 동정하다” 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 말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보다는 ‘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는 의미가 더 강하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결같이” ὁμοιότητα(호모이오테타) “ 마찬가지로” πεπειρασμένον(페페이라시메논) “ 시험을 받은” 자 이시다. 그가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처음 사역을 준비하실 때부터 사단은 시험했다(마4:1, 3). 그러나 그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마4:7). 또한 사람들도 그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박았다(마27:30, 41, 49, 막15:19, 20). 그러나 그분은 죄에서 χωρὶς(코리스) “ 떠나서, 분리되어” 있는 분이였다.

비둘기 처럼



이영제 목사
주앙교회 담임
남부미선교회 대표

가끔 길을 가다보면 비둘기가 차에 치어 죽어있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런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날 뻔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도로에서 비둘기는 먹이를 먹느라 정신이 없어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천천히 차를 몰았는데 한참 후에 차 밑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자칫하면 깔려 죽을 뻔했던 것이다.
사람하고 지나치게 친해진 것이 문제일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한다.
어느새 큰 차가 뒤에 와서 덮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먹이를 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것은 아닌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한 비둘기처럼.
또한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만나게 되다보니
우리 스스로가 무뎠던 것은 아닌지?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들이 많아해도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소중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영제 목사>

주앙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베트남 정00 선생
중국 리00 전도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인도 초띠욱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오전 11:00 /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 찬양, 성경강해

새벽 5:00 / 새벽예배

수요 오후 7:30 / 삼일예배(주제별 성경공부)

금요 오후 9:00 / 심야예배(찬양과 기도집회)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3.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 본문 : 요 11:1-44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특징을 이해함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통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나사로가 죽게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4절)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잠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것은 아니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 급히 서둘러 길을 떠나시지 않았고 언제든지 그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둘러 길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기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41절) 이것은 우리의 기도모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 신적 권한을 부여받아 오신 분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 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 이외에도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막5:22-43)과 나인 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눅7:11-17)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죽은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절’한 상태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17절)는 진술은 그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시체는 썩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더 확신을 만들어준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25절)으로서 자신을 확실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우연하게 단순히 살리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5절)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도다”(11절)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눈물을 흘리시더라”(35절)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36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사망의 눈물을 거두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난주(2003.6.29) 설교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
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 Email : webmaster@kcm.co.kr